Messenger International

2020. 11
News Letter

아이들의 꿈,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메신저인터내셔널

방호복을 입은 선교사, "그래도 그들 곁으로"

– 코로나19, 모두가 피하는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

올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쓴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걷잡을 수없이 그 수를 늘려가던 필리핀의 확진자 수는 8월에 이미 하루 확진자 5천명을 넘어서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11월 초 현재 누적 확진자 38만명, 사망자는 7천명... 필리핀은 지금 코로나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낙후한 의료체계, 필리핀은 그저 꽁꽁 걸어 잠그는 것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모릅니다. 3월부터 시작된 전국 봉쇄령에 학교와 회사는 문을 닫았고, 텅 빈 거리에는 뜨거운 열기만이 여전한 존재감을 뽐어냈습니다. 20세 이하 청소년과 60세 이상 노인들의 이동 금지령으로 거의 자택 구금에 가까운 생활을 한지도 어언 8개월, 이러한 상황 속 메신저 공부방도 4월부터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두렵지만 그래도 할 일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특히 메신저 세부 센터는 방과 후 공부방을 통해 아이들과 매일 만나다시피 해왔는데, 코로나로 갑자기 길이 막혀 안타까움이 더했습니다. 현지 김정석 선교사님께서는 얼마를 못 견디시고 바로 방호복을 구해 입고 그들 곁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봉쇄된 상황 속 '혹시 아이들이 굶고 있지는 않을까', '마스크와 생필품 등 당장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하는 생각에, 그리고 어쩌면 그보다 앞선 아이들을 향한 그리움이 그 두려움의 공포를 이기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8월까지 한 회도 거르지 않고 매달 아이들이 있는 그곳을 찾아 일일이 구호품을 전달하고 오셨습니다. 현재는 사모님의 둘째 출산으로 잠시 한국에 입국해계셔서 현지 스탭들이 대신 찾아가서 물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선뜻 가려고 하지 않는 곳, 그래서 우리가 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곳, 그렇지만 여전히 아이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오늘도 메신저 사역자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6월, 앙헬레스 센터에 멋진 셔틀 차량이 생겼습니다. 3월부터 본격화된 봉쇄령으로 대부분의 한인들이 사업을 접고 급히 귀국하던 시기를 이용해 저렴한 가격으로 튼튼한 SUV 차량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매일 구호품을 전달하느라 더욱 기동성이 요구되는 가운데 있는데, 지앤엠 재단의 지원금을 통해 마련한 이 차량으로 앞으로 더욱 신속하고 가까이, 아이들을 만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워낙 봉쇄 상황이 심각해 상황이 열리는 만큼만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4월부터 대부분 현지의 '머니 트랜스퍼 서비스(휴대폰으로 돈을 송금하면, 수신자가 그 영수증을 가지고 근처 가게에서 교환할 수 있음)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우리 아이들 중에는 확진자가 없는데, 아이들은 이 구호금을 통해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하고 각자의 근황과 함께 인증샷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필리핀도 8월 말부터 전면 온라인 수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만큼 많은 특별후원금을 보내주셔서, 올해 전년도(7명)보다 많은 아이들(12명)에게 장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5명의 학생에게 사립 입학 지원금을 전달했고, 성적 우수자인 이요셉과 대학 진학자인 김하늘에게 전액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이외 5명의 아동에게 태블릿PC와 인터넷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4월부터 문을 닫아야 했던 세부 센터는 식량 전초기지처럼 변신했습니다. 수백 봉지의 누들과 쌀, 생수 및 다양한 통조림 캔들이, 시끌벅적하던 아이들의 웃음 대신 적막한 공부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세부에만 2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해 두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지원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매월 직원들은 이렇게 각 가정에 전달할 식료품들을 구입해 직접 분류하고 나눕니다.

아직 백신도 없는 낯선 바이러스인데다 혹시 모를 감염 상황에 겁도 나고 두렵지만, 메신저 선교사님은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 유일하게 찾아와주는 반가운 친구입니다. 그동안 관광업과 음식점 등 한인 관련 업체들에서 일하던 엄마들은 코로나로 이들이 떠나자 현재 대부분 실직해 생계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도심 세부 시티를 떠나 외곽으로 이동하는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메신저 후원의 세부 아이들 중에서도 많게는 30명까지 막탄섬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에 내년 사역으로 막탄 센터 오픈을 준비하고 있으며, 실직 엄마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킨 바비큐 판매 사업을 기획 중입니다. 또한 세부도 9월부터 본격 온라인 학기가 시작되어 김신애 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했고, 이외 3명(이리자, 이요한, 이지수)의 학생에게 사립 전학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코피노 아이들의 '교육'을 중심으로 사역해온 메신저는 올해 유독 힘든 한 해를 보내야 했습니다. 극심한 필리핀의 봉쇄 상황에, 4월부터 메신저 공부방도 문을 닫았고, 아이들은 각자의 동네에 고립되었는데, 주로 빈민가에 사는 이들의 구호 지원에 맞춰 그 모양을 변경해가야 했습니다.
이에 4월부터 긴급 구호금을 전달한 이래 현재까지도 계속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책과 운동화 등 2월에 선적으로 발송했던 후원품이 코로나로 인해 6월 말에야 세부에 도착했고, 11월 초에 다시 이태경 대표님(경주 모다아울렛 S마켓)이 보내주신 신발 100여 켤레를 앙헬레스로 보냈습니다. 또한 내년 세부에 세워질 코피노 도서관을 위해 김혜림 후원자님께서 영어 도서 수십 권을 사무실로 보내주셔서 정리중에 있습니다.

〈Special Thanks to...〉

4월부터 170여 가정에 1,500페소(약 4만원)의 긴급 구호 지원을 해왔지만, 최소 5인에서 많게는 10인 이상의 가족이 함께 사는 현지에선 1~2주분의 식비밖에 되지 않아 부족함이 컸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각처에 긴급후원을 요청했는데,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후원금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런 단비 같은 특별 후원들이 이어지며 하반기 메신저 사역을 무리 없이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6월, 차민경 이사님(뉴서울성모재활요양병원)께서 지난 3월에 이어 다시 후원금을 보내주셨고, 소효근 대표님((주)컬리넌홀딩스)께서도 귀한 후원금을 전해주셨습니다. 7월에는 김종수 교수님(한국뉴욕주립대 부총장)께서 작년에 이어 장학후원을 해주셨고, 8월, 김귀순 목사님께서도 매년 이어오시는 장학금을 올해도 어김없이 전해주셨습니다. 또한 10월에 남윤석 교수님(한국산업기술대)과 감리교 여선교회 전국연합회에서 소중한 후원금을 전해주셨습니다.

코로나로 대면 예배가 중단되며 교회가 어느 때보다 힘든 해였는데, 그럼에도 주안장로교회(주승중 담임목사님), 새중앙교회(황덕영 담임목사님), 혜림교회(김영우 담임목사님)에서 특별후원금을 보내주시며 귀한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밖에도, 꾸준히 정기후원을 해주시는 강릉중앙교회, 과천약수교회, 두모갓교회, 문호교회, 송도좋은교회, 수지이룸교회, 압구정예수교회, 열림교회, 의왕우리교회, 이천순복음교회, 예수열방교회, 주다산교회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마지막으로 본부 사역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는 지앤엠글로벌 문화재단과 ㈜우주텔레콤, ㈜선광티앤에스, 주식회사 예일테크 등 후원기업들에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세부 – 코로나 격리시설에서 돌아온 신애의 안정을 위해

5월, 신애와 요한 등 우리 아이들 대부분이 살고있는 빈민가인 루츠 지역에 며칠 새 13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여 우려하던 중 결국 신애네 할아버지가 확진 판정을 받아 가족 전체가 격리시설로 이동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할아버지를 제외하고 모두 음성이 나와 무사히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KBS 다큐 방송에도 출연했었던 신애(15세)는 여전히 밝은 모습으로 지내고 있고, 올해도 메신저 장학금을 지원받아 현재 열심히 온라인 수업을 들으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부 – 안젤리에의 화상 치료 후 회복을 위해

5월, 무덤 마을인 로레가에 살고있는 안젤리에(11세)가 허벅지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어 담당 사역자님이 치료해 주시고 센터에서 1주 정도 회복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안젤리에의 현지인 새아빠는 현재 마약 사건으로 감옥에 있는데, 언제 석방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수입이 없는 엄마가 가까스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현재는 코로나로 이마저도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안젤리에의 아픈 상처가 잘 아물고 다시 환한 미소를 찾게 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앙헬레스 – 강제퇴거 당한 존마이클&제임스 형제를 위해

존마이클(6세)과 제임스(3세) 형제네는 코로나로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월세(4천페소, 약 10만원)를 내지 못해 8월 말, 결국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현지 사역자님께서 수소문 끝에 우리 코피노 가정 중, 프린세스 림(7세)이 살고있는 집에 급히 방 한 칸을 얻어 이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2평 남짓한 방에 다섯 식구가 살아가기에는 너무 작아 걱정인데, 이마저도 수입이 없는 이 가정에는 부담일 뿐이라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런 가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걱정입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앙헬레스&세부 – 성경 필사 및 암송대회를 위해

필리핀 메신저 센터는 현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상황 속에서, 연말까지 성경 암송과 필사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우수자에게는 자전거, 컴퓨터 등 풍성한 시상이 예정돼 있어 기대가 한창입니다. 한창 뛰어놀아야 할 나이에 집안에만 갇혀 있어 답답해하던 아이들에게는 신앙훈련도 하고 선물도 받을 수 있어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부에서는 성경책과 필기구 등 학용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새 전등으로 더욱 밝아진 환경에서 되도록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게되길 기대합니다!

어둠을 이기는 빛, 그 '빛'을 선물하는 시간

– 앙헬레스 센터, 태양열 전구 설치 지원 사역

캄캄한 터널을 지나며 깊은 두려움에 마주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우리는 한 가닥 빛에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빛은 그렇게 어둠 속 우리의 시간을 인도하고, 또 견디게 합니다. 그렇게 계속 빛을 향해 가다 보면 결국에는 출구를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2020년, 전 세계를 휘감은 어둠의 터널은 아마 '코로나19'라는 현 상황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모두가 이 막막한 상황을 마주하며 힘겨운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하루 확진자가 5천명 이상씩 발생하는 초유의 암흑기를 겪고 있고, 11월 초 현재, 누적 확진자 수 38만명, 사망자는 이미 7천명을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아이들이 매일 뛰놀며 등교하느라 시끌벅적했던 거리는 수개월째 지속된 봉쇄와 격리 상황으로 인해 일상의 시간이 멈추며 황량하게 방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 삶을 둘러싼 빛들도 하나둘씩 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들은 직장을 잃었고, 수개월째 월세를 못 낸 가정들이 그 냉혹해진 거리로 다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정은 가장 먼저, '빛'을 잃었습니다.

필리핀 정부의 봉쇄와 격리 방침의 장기화 속에, 메신저의 사역도 4월부터 잠시 쉼표를 찍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지원이 필요한 가정들은 계속 늘어만 갔고, 메신저는 다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야 했습니다. 필리핀 현지에서 10년 가까이 구제 사역을 해오시다 올해 초 앙헬레스 메신저 센터 새 담당 사역자로 부임하게 되신 조근묵 선교사님은 이전부터 빈민가 아이들 가정에 태양열 전구를 설치해주는 작업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다 올해부터 정식 메신저 센터 사역자로 섬기시게 되었는데 이 낯선 바이러스의 상황에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무력감마저 느끼셨다고 합니다.

캄캄하던 어둠 속, 불 밝힌 1호집

"이제 성경 속 작은 글자가 훨씬 잘 보여요!"

* 인터넷 설치도 어려운 시골에서 전기세 때문에 어두운 환경에 지냈던 중, 집을 환하게 밝혀준 태양열 전구를 안고 선교사님과 함께 행복해하는 유리의 모습 (사진 설명)

그러나 지역 간 이동이 어느 정도 가능해지면서 각 가정에 위로차 직접 다니게 되셨는데, 그중 가장 먼저 필요를 발견하신 것이 바로 이 '빛' 문제였다고 합니다. 조사해보니 코로나로 인한 실직으로 전기세를 내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았는데, 이중 어떤 집은 밖에 세워둔 오토바이에 조그마한 전구 하나를 연결해 가까스로 어두운 안을 밝히고 있던 가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집들에 새로 태양열 전등을 설치해주면 전기가 끊긴 가정에는 빛을 선물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가정에도 앞으로 전기세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시작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해당 가구는 총 30가구로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설치를 진행 중인데, 기존 백열등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100W의 태양열 전등으로 바꿔주는 간단한 작업으로 예산은 전등 구입과 설치비를 포함하여 가정당 2,000페소(약 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현지에서 이 작업을 총괄하고 계신 조 선교사님께서는 "처음에는 생활고로 인해 길가에 다시 내몰리는 가정들 사연에, 지켜보는 내내 마음이 어려우셨는데, 간단한 작업으로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보람된다"고 하시며, "무엇보다 아이들이 앞으로 이 밝아진 환경 속에서 성경을 읽고, 쓰면서 참 빛 되신 주님을 발견하길 바란다"는 소망도 덧붙이셨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새 빛을 통해 학업에도, 삶에도, 그리고 신앙에도 도움이 되길, 무엇보다 그들 삶의 두려움 속 평안의 이유가 되고, 삶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길 기도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개역개정 성경, 마태복음 5장 15절)

공지사항

1. '2020 메신저 멤버스데이'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올해 열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더욱 충실히 준비하여 내년에는 꼭 후원자 분들과 특별하고 소중한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2020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분들이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최초에 신청하지 않으셨던 분들은(주민등록번호 전체기입 필요)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3. 메신저 도서관과 센터에 비치할 영어 도서와 온라인 수업을 위한 노트북 등을 후원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모아주세요

1. 한국과 필리핀, 전세계를 덮친 코로나19 감염증의 해결과 회복을 위해
2. 필리핀 각 지부(앙헬레스, 세부) 센터 사역자님들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
   (앙헬레스 – 조근묵, 최주영 선교사님, 세부 – 김정석, 유희선 선교사님)
3. 비대면의 특수 상황에 맞춰 내년 사역에 대한 준비를 지혜롭게 잘할 수 있도록
   (앙헬레스 – 모든 모임의 영상화 시스템 마련
   세부 – 도서관 및 막탄센터 오픈, 바비큐 판매 사업 지원)
4. 메신저 사역에 후원자들이 늘어나고 필요한 재정들도 넉넉히 채워질 수 있도록

후원계좌

1. 신한은행 100-025-948669 / 예금주 : 사단법인 메신저인터내셔널
2. 외환은행 630-272206-458 / 예금주 : (사단)메신저인터내셔널

우 04969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78길 44, 512호(광장동114 크레스코)
T. 02-722-0645~7 F. 02-737-5997 www.messengerin.com
(사)메신저인터내셔널 이사장 김춘호 사무총장 김명기

Messenger International